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국어 정답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6	㉔	7	㉔	8	㉔	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㉔
16	㉔	17	㉔	18	㉔	19	㉔	20	㉔
21	㉔	22	㉔	23	㉔	24	㉔	25	㉔
26	㉔	27	㉔	28	㉔	29	㉔	30	㉔
31	㉔	32	㉔	33	㉔	34	㉔		

해설

[1~3] (독서 이론) 류수경, 「자기 결정 조절 동기를 통한 독자 정체성 형성 방안 연구」

이 글은 자기 결정성 이론을 독서 상황에 적용해 독서 동기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자기 결정성이 증진됨에 따라 동기의 단계는 무동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내재적 동기로 나아간다. 자기 결정성이 가장 높은 내재적 동기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서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자기 결정성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것은 기본 심리 욕구가 아니라 동기의 단계이다. 2문단에 따르면 자기 결정성 정도를 기준으로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서 경험을 하는 것이 자발적 독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자기 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동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자기 결정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내재적 동기 단계이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자기 결정성 이론은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독서 동기는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지속시킨다.

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상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는 동기는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이다. 학생 2는 칭찬이라는 보상에 의해 책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주제 내부의 요인에 의해 책을 읽고 있으므로 내재적 동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무동기 단계는 자기 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이다. ③ 학생 2는 좋은 점수라는 보상에 의해 독서했으므로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에 있었다. ⑤ 학생 3은 부모님의 가치 판단을 수용하여 책을 읽고 있으므로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에 있다.

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영화를 보고 흥미가 생겨 원작 소설을 찾아 읽는 것은 ㉔이 아닌 ㉔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흥미에 따라 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㉔이 충족될 수 있다. ② 독서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있으므로 ㉔이 충족될 수 있다. ③ 도전적인 글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㉔이 충족될 수 있다. ⑤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친밀감을 나누고 있으므로 ㉔이 충족될 수 있다.

[4~9] (인문 주제 통합) 박영옥,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

(가) 쇤베르크는 12음 기법을 통해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 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 범조성이라는 보편적인 음악적 질서를 추구하였다.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가 해체됨으로써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인 응집력을 통해 곡은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된다.

(나)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현재 순간을 미시적으로 직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당면시되는 전제에 대한 자연적 태도를 판단 중지를 통해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사물의 본질, 즉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인 순수 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쇤베르크는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4.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쇤베르크에게 있어 음악적 형식이란 조성 음악과 같이 미리 정해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집력이라는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쇤베르크는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추구하였다. ③ 쇤베르크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강조했다. ④ 쇤베르크는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현상학적 잔여는 자연적 태도를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순수 현상이다. 이는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의식의 지향성이 배제된 상태, 즉 자연적 태도가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되는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오답풀이] ② 후설은 과거와 미래를 끌어들이는 지금 이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했다. ④ 현상학적 환원이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에서 ㉔은 조성 음악이라는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로 제시된 반면, (나)에서 ㉔은 새로 제시된 또 다른 규범으로서, 기존의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로 제시된다.

[오답풀이] ① 쇤베르크가 추구한 범조성은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를 해체한다. ④ ㉔은 작곡가가 음들 사이의 관계에 기인하는 유사성의 반복을 통해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형성하는 질서이다.

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는 ㉔에서 쇤베르크가 조성 음악의 작곡 기법을 거부하면서도 평균율의 12음이라는 음악의 재료를 고수했다고 비판한다. 음악의 재료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에 따르면, 조성 음악은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에 따라 음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반면, 12음 기법은 12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하는 작곡 기법이다. 즉 배열 방식이 다른 형식이라는 점에서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서로 다른 음악적 재료이다. 따라서 (가)의 글쓴이는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동일한 음악적 재료가 아니라고 반박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나)의 글쓴이의 쇤베르크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반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④ (가)의 글쓴이는 12음 기법의 12음이 평균율의 12음과 동일한 음악적 재료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⑤ 평균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못했다는 것은 (나)의 글쓴이의 쇤베르크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반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B에 따르면,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 낸 인위적 현상’이란 기존의 질서를 전제하는 자연적 태도에 따라 의식의 지향성이 구성한 현상이다. 따라서 기계음이 새로운 시대의 음악적 재료라는 루솔로의 주장이 기계음이라는 인공적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 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진술은 B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십자놀이>에서는 어떤 패턴도 반복되지 않으므로 유사성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응집력과 그로 인한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해체되다’는 문맥상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를 뜻하는 ‘흩어지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⑤ ‘간과(看過)하다’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를 뜻하므로, ‘어떤 일이나 현상을 문제 삼거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넘기다.’를 뜻하는 ‘지나치다’로 바꿔 쓸 수 있다.

[10~13] (사회) 임재연, 「자본시장법」

이 글은 상장 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공시 의무를 다룬다.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 법인은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중요사항이 기재된 공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행된다.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는 증권을 공모할 때 이루어지며, 유통 시장에서의 공시는 정기 공시, 수시 공시, 공정 공시로 나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 법인은 제재를 받으며,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사모에 해당하며, 상장 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는 상장 법인은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유통 시장은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그 가격 또한 변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공시 제도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중요사항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상장 법인은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상장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와 정기 공시는 상장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공시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상장 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추가로 발행해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도 공시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정기 공시는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해 공시 자료를 제출한 상장 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증권의 최초 발행 가격과 수량 정보는 공모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는 수시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1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5문단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대상은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이다. C는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이므로 C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다. 대주주 A의 지분이 증권 신고서에 누락된 것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② A가 2024년 10월 이후에 공시된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중요사항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주식 매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갑의 지난 분기 영업 이익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라 할 수 있다. 상장 법인은 이러한 정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공시하는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④ B는 상장 법인의 임원이고, C에게 전달한 갑의 영업 이익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B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1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㉔의 ‘이른다’는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는 의미이다. ③의 ‘이른다’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가리켜 말한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㉔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①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는 의미로 쓰였다. ② 어떤 사람의 잘못을 뒷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④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밝혀 말해 준다는 의미로 쓰였다. ⑤ 무엇이라고 말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14 ~ 17] (과학) John Hall, 『의학생리학』

인체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에 따라 혈압이 조절된다. 혈압은 심장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하는데, 체내 여러 기전에 따라 심장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이 조절되는 것이다. 콩팥에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조절되고 나트륨 재흡수 과정이 조절됨에 따라 체액량이 조절된다. 또한 신경 반사 과정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체내의 여러 기관에 작용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콩팥의 작용과 신경 반사는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 따르면 안지오텐신Ⅱ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킴으로, 안지오텐신Ⅱ가 증가하면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 양은 증가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심장박출량은 일회당 심장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이며 일회당 심장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 혈압의 상승 폭이 더 크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혈압이 하강하여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하면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한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킴으로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레닌 분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안지오텐신Ⅰ의 형성이 증가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안지오텐신Ⅱ는 교감 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촉진한다.

1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2문단에 따르면 사구체의 여과는 모세 혈관 압력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여과액의 양의 감소하는 것은 혈압 하강에 따라 모세 혈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혈압이 하강할 때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사구체에서 세뇨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감소할수록 체액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혈압의 하강이 사구체 여과액 양의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카테콜아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되며, 레닌의 분비가 촉진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혈압이 하강할 때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혈압이 증가하면 사구체 여과액의 양은 증가하고 3문단에 따르면 혈압이 증가하면 나트륨 재흡수의 양은 감소하므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증가할 때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부교감 신경계의 흥분을 통해 혈압이 하강하는 과정에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된다. 따라서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4문단에 따르면 부교감 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심장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혈압을 하강시킨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카테콜아민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고, 이는 말초 혈관 저항 증가로 이어진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는 혈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낸다.

1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3문단에 따르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안지오텐신Ⅰ을 분해시켜 안지오텐신Ⅱ가 형성되도록 한다. 따라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더라도 안지오텐신Ⅰ의 양이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혈압은 말초 혈관 저항에 비례하므로 말초 혈관이 좁아지는 재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카테콜아민은 심장에 작용하여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보기>에 따르면 칼슘은 심장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므로,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심장박출량을 감소시킨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나트륨 재흡수의 증가는 수분 재흡수로 이어지므로,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안지오텐신Ⅱ이 형성되도록 하고 안지오텐신Ⅱ는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칼슘은 혈관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18 ~ 21] (현대 소설)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이 작품은 출입문을 매개로 서사 구조가 순환되는 비현실성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노동에 저당 잡힌 채 끝없는 노동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전당포에 취직한 ‘그’는 창고 정리 일을 하던 중, 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반복된 노동으로 자신의 생애를 유지했던 지난날을 환기하며, 점차 자신의 상황에 적응한다. 갑자기 다시 문이 나타나 ‘그’는 창고 밖으로 나가지만, 문을 통과하는 순간 처음 ‘그’가 전당포로 들어왔던 상황이 재연된다. ‘그’는 전당포 취직부터 문이 사라져 창고 안에 갇히는 과정을 또 경험하고, 창고 안에 다시 갇혔을 때 자신의 생애 중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

1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가 자신은 앞으로도 외로울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내용이 서술된 것이지, 서술자가 ‘그’의 현재 심리와 ‘그’가 앞으로 처할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이 마주한 벽을 주제로 서술하여 벽의 ‘단호한 힘’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생각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③ 초점화된 인물인 ‘그’의 관점에서 주인이 일당을 아까워할 것이라는 반응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그는 생각에 잠겼다’에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가 포함되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굳이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그’는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을 수 없어 괴로워했으며, 이는 과거 갭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③ ‘그’가 조그만 창고에서 가중된 유폐감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았던 갭 속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응된다. ④ ‘그’가 창고 안 먼지와 갭 속 석탄을 모두 죽은 시간의 잔해로 인식한 것은, 창고 안과 갭 속 모두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⑤ ‘그’가 갭 속을 나와 하늘을 보고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음산하다고 인식한 것은, 석탄을 켜던 갭 속이 암흑으로 가득했던 것에 기인한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㉔는 ‘그’에게 주어진 창고 정리 일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결과로 나타난 반응이고, ㉕는 사라졌던 문이 다시 나타난 예상 못 한 사건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오답풀이] ① ‘그’가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문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그’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그’와 전당포 주인 간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발작적인 충동’은 일에 대한 지겨움과 무의미성에 대항하는 심리이다. ‘그’가 ‘발작적인 충동’을 참아 내고 있었다는 것은 일에 대한 지겨움과 무의미성에 순응하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므로, ‘발작적인 충동’을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그’가 자신의 생애를 살피며 이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한 것은, 자신의 삶을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저당 잡혀온 채 살아왔음을 자각한 것이다. ③ ‘그’가 자신의 노동만이 이루어지는 단절된 창고 안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며 적응하는 것은, 점차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외부에서 다시 전당포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은, 문을 열고 나온 ‘그’에게 ‘아름다운 전도감’을 의식하게 하는 속성이다. ⑤ ‘그’가 전

당포 내부와 대머리 주인에 대해 낯설과 낯익음을 동시에 느끼며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은, 반복된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22 ~ 26] (갈래 복합) 권섭, 「영삼별곡」/김매순, 「풍서기」

(가) 권섭, 「영삼별곡」

권섭이 제천에서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까지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가사로, 여행지에서의 견문과 흥취를 감각적으로 담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초반부와 중반부로, 봄날을 배경으로 자연을 감상하고자 여행을 떠나는 장면과 여정 중에 마주한 자연의 광활함,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나) 김매순, 「풍서기」

작가인 석릉자 김매순이 바람이 요동치는 집에 거처하면서 바람에 관한 사유를 펼치고 있는 글이다. 석릉자는 어떤 사람에게 바람의 속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바람의 속성으로 인해 만물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2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와 달리 (가)는 ‘봄바람’, ‘삼월 삼절’ 등을 통해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봄날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흥취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 봄이라는 계절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오답풀이] ② (나)에는 인물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과 후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 날에 대한 반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에서는 ‘아이들과 촌로들’이 한가하게 봄을 즐기는 모습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아 아쉬워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삼십 년 세월’이라는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신의 삶을 집약하고 있다. ② ㉠에서는 ‘동쪽 골짜기’로 이어지는 봄길의 풍경을 묘사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방향으로 여정을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④ ㉠에서는 ‘산골짜기’를 거쳐 ‘청령포’에 이르는 여정을 ‘꿈속’에서 지나쳤다고 표현해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⑤ ㉠에서는 깊은 ‘청옥산 속’에서 마주한 풍경의 아름다움을 ‘운모 병풍 비단 장막’에 비유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화자는 ㉠의 조언으로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을 즐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의 도움으로 여행 중 험한 벼랑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된다.

[오답풀이] ① ㉠은 위험한 여정을 도와줄 뿐 화자가 달성할 목적에 대해 조언하지는 않는다. ② ㉠와 ㉠ 모두 화자의 태도를 나무라지는 않는다. ③ ㉠에 여정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은 화자의 여정을 도와줄 뿐 여행 기간 단축을 권유하지는 않는다.

25.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석릉자’가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람과 집을 구분하고 바람은 요동치는 것에, 집은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고 보는 어떤 사람과 달리 바람과 집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것이므로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어떤 사람’은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석릉자’는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 없지만 바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③ ‘석릉자’는 ‘큰 나무’, ‘굵은 싹’, ‘단단한 얼음’, ‘물결’과 같은 만물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았다. ④ ‘석릉자’는 ‘뛰어난 채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등이 사라져 버리니, 바람이 사라져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쭉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은 ‘한없이 쌓인 물’을 보고 자연의 불변성에 대해 감탄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라는 질문은 ‘망망대양’을 보고 자연의 이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으로 성인을 만나서 이 이치를 여쭙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의 상좌’의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진관암 없어진 줄’은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밖에 모르는 일’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구분을 인식하게 된다. ④ ‘석릉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람’과 ‘집’의 경계를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는 석릉자의 답변으로 이어진다.

⑤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과 직전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모든 것이 바람이니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치지 않겠다는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타난다.

[27 ~ 30] (고전 소설) 작가 미상, 「소대성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영웅 군담 소설이다. 작품은 주인공 소대성의 삶을 영웅의 일대기 구성으로 보여주면서도 소대성의 호방한 장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혼인담을 상세하게 그려내는 등, 다른 영웅 소설과의 차별점을 두어 통속적 재미를 극대화했다.

27. [출제의도] 서사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승상의 아들들은 왕 부인과 뜻을 같이하여, 소대성과의 혼약을 고수하고자 하는 여동생 채봉에 대해 마음을 돌이킬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지는 않고, 오히려 평소 행실의 총명함을 들며 채봉의 지금의 태도를 비판한다.

[오답풀이] ① 왕 부인은 승상이 소생을 데리고 왔을 때, 내당으로 몸을 피한다. ② 채봉은 소생과 혼약을 시키려는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고자,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③ 채봉이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 소생이 자리를 뜨려 하자 승상은 이를 말렸다. ⑤ 채봉은 오빠들이 자신을 설득하고자 유교적 가치를 저버리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여겼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과 ㉠에서는 소대성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인식과 태도가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중헌에서의 일을 혼약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왕 부인은 소대성을 남으로 여겨 ‘외간 남자’로, 채봉은 소대성을 남편으로 여겨 ‘군자’로 표현한다.

[오답풀이] ② 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상이한 반응을 보여준다. ③ 오히려 둘의 갈등을 부각한다. ④ 동일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⑤ 한 사건을 전제로 서로 다른 해석을 드러내고 있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과거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다는 것을 밝히는 인물은 채봉이 아니라 고사 속 인물인 공주이다.

[오답풀이] ② 지난 일의 증인이 되었던 어머니가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③ 고사 속 인물의 절행이 오랫동안 비판받아 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⑤ 중헌에서의 일이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승상이 살아 있을 때는 사윗감으로 소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승상의 뜻을 따랐던 왕 부인은, 승상이 죽은 후 채봉의 혼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왕 부인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우는 것과, 왕 부인이 출세 가능성이 보이는 선비로서의 면모를 가진 인물을 사위로서 선호하는 현상은 당대의 기저에 깔린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② 소대성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호방형 장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③ 승상이 독단으로 소대성을 사위로 결정하는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보편적인 안목에 구애되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채봉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므로,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면서도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1 ~ 34] (현대시) (가) 김기림, 「아스팔트」/(나) 김명인, 「봄길」

(가) 김기림, 「아스팔트」

이 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를 제재로 현대인의 우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 2연의 전반부에서는 아스팔트가 구체적인 시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고 4 ~ 5연에서는 아스팔트를 ‘너’로 지칭하며 ‘해저’, ‘회색의 잔디밭’ 등으로 비유하여 ‘우울’한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6연에서 아스팔트가 ‘행인들’을 위하여 지평선을 흉내를 내는 것에서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나) 김명인, 「봄길」

이 시는 김제 봄 들판을 건너는 화자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 화자는 ‘김제 봄들’에서 ‘신포 어디쯤’을 거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로 향하는 것으로 제시되며, 들판에서 본 ‘염소’는 ‘배’의 이미지와 다시 중첩되어 화자의 요동치는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ㄴ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가)에서는 아스팔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 문명의 모습을, (나)에서는 봄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나)에서 ‘출렁거리다’의 ‘출렁’은 음성상징어인데 이를 활용하여 ‘상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을 파악한다.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회색의 잔디밭’에서 알 수 있듯이 ‘너’로 칭하고 나서 화자는 아스팔트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짐을 알 수 있다. ‘우울’은 단순히 ‘아스팔트’의 심리가 아니라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이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아지랑이 너머’에 있는 곳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다. ㉠에서 화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 자체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마음’은 화자의 내면이고 ‘간격들 한

충 충충해’진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내면을 의식하는 것이다. 화자는 ㉠에서 ‘꽃이 피’는 현상이 변화된 내면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 화자는 ‘꽃이 피’면 ‘몸 건너지’가 힘들을 자각하고 있다. 화자가 ‘힘들’의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그 꽃잎’을 ‘부리러’ ‘신포 어디쯤에 닿아 해맨다’고 한 것은 힘들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화자는 ‘거기’인 ㉤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 속’에서 ‘곤두’선다고 표현한다. 이때 ‘곤두서’다는 비유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짐을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감각적으로 바람을 몸 속에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시에서 화자는 ㉤를 거쳐 ㉥을 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화자는 ‘멈칫거리자’고 하는 ‘마음’과 ‘더 지워야 한다’는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달이 끓긴 배 한 척’에 빗대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분주’함이 드러날 수 있으나, <보기>에 따르면 ‘자동차’와 ‘아스팔트’는 모두 ‘도시 문명’을 뜻하는 것으로 둘 사이에는 경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 때문에 ‘아스팔트’와의 경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가)에서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의 상태는 생명력을 띠고 있어야 하는 자연물이 생명력을 띠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가로수의 모습은 생명력을 띠지 않는 ‘아스팔트’와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에서는 화자의 ‘몸’이 봄 들판을 ‘건너’고 있는데 이때 ‘건너다’라는 말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이를 통해 들판과 바다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봄 들판을 지나는 화자의 흔들리는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 (가)에서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6년의 첫 번째 행 안에서 연결되어 제시되어 있는 ‘바다’가 지닌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음’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스팔트’는 시적 맥락상 ‘바다’를 꿈꾸는 것으로 이해되는 ‘행인들’을 위해 ‘바다’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접붙이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쪽이 접붙이기가 잘된 걸까요?’, ‘접붙이기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와 같이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다행이네요.’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 발표의 마지막에 ‘접붙이기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라고 질문하여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지만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에서 [자료 3]의 아래쪽 그림을 보여 주며 대목과 접수의 판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지 않으면 대목의 물과 양분이 접수로 전달되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접수의 밑부분을 비스듬히 깎는 것, 대목을 자르고 가르는 것, 접수를 대목에 끼워 넣는 것을 설명하며 접붙이

기의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대목과 접수에서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판다발 형성층임을 설명하고 있다. ㉢ ㉠에서 [자료 2]의 확대된 부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판다발 내에서 형성층의 위치가 물관과 체관 사이임을 설명하고 있다. ㉣ ㉠에서 [자료 3]을 보여 주며 어떤 쪽이 접붙이기가 잘된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청중이 접붙이기가 잘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학생 1’은 아버지를 도와 모란을 작약에 접붙이기로 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있다. ㉡ ‘학생 2’는 탕자나무와 굴나무 말고 어떤 식물 간 접붙이기가 가능한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학생 3’은 접붙이기를 한 뒤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학생 2’는 접붙이기를 통해 접수의 품종을 개량한 다른 예를 찾아보려 하고, ‘학생 3’은 접붙이기 이후의 관리 방법을 알아보려 하고 있으므로, 모두 발표 내용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앞으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정해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모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의 발언 내용을 반영해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제안하고 있다. ㉣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에게 질문을 던지며 문제의 원인에서 해결 방법으로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링겔만의 실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링겔만 효과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찾은 자료에서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이 링겔만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링겔만 효과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가)에서 ‘학생 3’은 세 번째 발화에서 ‘나 하나뿐이야’라는 생각을 링겔만 효과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의 2문단에 문제 상황을 발생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반영되었지만, 사례가 추가되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 (가)의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주제 선정의 배경을 언급하였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모둠 활동을 수행할 때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 (가)의 ‘학생 2’는 두 번째 발화에서 링겔만의 실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링겔만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가)의 ‘학생 3’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어떤 실험인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나)의 3문단에서 ‘역할을 지정함으로써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해결 방법을 시사하는 실

험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가)의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나)의 3문단에서 ‘의견 제출하기’와 같은 막연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내일까지 의견 다섯 개씩 제출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1문단에서 독자인 학교 친구들에게 익숙한 상황인, 학교에서 모둠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예상 독자와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초고에서는 ‘집단 속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집단 속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모둠 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나)의 3문단에 제시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모두 드러나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을 생성한다.

초고에서는 국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초고의 1문단에서, 매년 최대 1만 4천 톤에 달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초고의 1문단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초고의 2문단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호의 백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초고의 4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 백화 현상이 나타난 산호의 비율이 약 44%에 달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초고의 2문단에서, 산호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산호가 멸종 위기에 처하면 식량 안보, 기후 안전 등 인간의 삶에 직결된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성분을 고려하고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교지 편집장의 조언 중 첫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교지 편집장의 조언 중 두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자료 1-ㄴ]은 자외선 차단제 구매 시 고려 요인에 대한 국내 성인 407명의 응답률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자료 2]는 산호의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규모 백화 현상이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외선 차단제 판매 업계에서도 바다에 덜 해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을 알려 주는 신문 기사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해, 자외선 차단제 판매 업계가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4문단에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의 대안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 [자료 1-ㄱ]은 자외선 차단제의 주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산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준 농도와 하와이 해변에서 검출된 농도를 각각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를 활용해 옥시벤존

과 옥티노세이트가 독성 발현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로 하와이 해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3문단에 하와이의 자외선 차단제 규제 배경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2]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호의 멸종 위기가 인간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2문단에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의 또 다른 사례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3]은 우리나라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함량 규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전문가 인터뷰 자료이다. 이를 활용해 자외선 차단제가 물놀이와 샤워 등을 통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1문단에 자외선 차단제의 해양 유입 경로의 예시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자료 1-ㄱ]과 [자료 3]을 함께 활용해, 국내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함량 규제가 해양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4문단에 자외선 차단제 생산 시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㉔	36	㉔	37	㉔	38	㉔	39	㉔
40	㉔	41	㉔	42	㉔	43	㉔	44	㉔
45	㉔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어미를 이해한다.

현대 국어에서 ‘-더-’가 표현하는 과거는 화자가 사건을 인식한 시점이며, 이는 과거에 국한된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더-’가 쓰인 문장에서 화자의 사건 인식 시점이 과거가 아닐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더-’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③ 현대 국어에서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관형사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표현할 수 있다. ④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인 ‘춥다’가 서술어로 쓰인 평서문이므로 1인칭 주어가 ‘-더-’와 함께 쓰인다. ⑤ 근대 국어 시기에 선어말 어미 ‘-앗-/~었-’이 새로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확립되면서 중세 국어의 ‘-더-’는 그 의미가 ‘어떤 사실을 지각을 통해 새로 알게 됨.’으로 바뀌게 되었다.

36.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 ‘-더-’에 대해 이해한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에서 ‘-던’이 쓰인 관형사절은 주어의 인칭과 관련하여 현대 국어의 ‘-더-’가 갖는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내 퉁당퉁다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인 평서문이 아님에도 1인칭 주어와 ‘-더-’와 함께 쓰였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더-(-러-)’와 ‘-시-’가 연이어 쓰일 때 ‘-더시-’(-러시-)로 나타나, ‘-시더-’의 순서로 나타나는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③ ㉔은 ‘-더-’가 ‘-오-’와 결합한 융합형인 ‘-다-’로 실현된 것이고, ㉔은 ‘이다’의 ‘이-’ 뒤에서 ‘-더-’가 ‘-러-’로 실현된 것이다. ⑤ 중세 국어의 ‘-더-’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것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의미가 현대 국어의 ‘-던’의 ‘-더-’에 남아 있기 때문에 관형사절에서는 미래의 사건에 ‘-던’을 사용할 수 없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㉔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가 일어난다. 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므로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 개수의 제한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러나 ㉔ ‘맺힌[매진]’은 발음할 때 거센소리되지만 일어나므로 ㉔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㉔ ‘꽃잎에[쁘니페]’는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고, ㉔ ‘울조리며[읍

조리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㉔, ㉔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다. ② ㉔ ‘구급약[구:급낙]’은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㉔, ㉔에서는 모두 첨가된 ‘ㄴ’으로 인해 비음화가 일어났으며, 비음화가 일어나면 조음 방법이 변하게 된다. ③ ㉔에서는 거센소리되기, 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⑤ ㉔에서는 유음화, ㉔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유음화와 비음화는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38.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대해 이해한다.

‘지금 상황은 그가 차기 학생회장이 되기에 매우 유리하다.’에서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유리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명사절인 ‘그가 차기 학생회장이 되기’는 조사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고, 보여 ‘학생회장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은 ㉔이다.

39. [출제의도]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a. ‘삶은’(삶- + -은), ‘설익어서’(설- + 익- + -어서)는 모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자립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햇감자’(햇- + 감자)는 의존 형태소인 ‘햇-’과 자립 형태소인 ‘감자’로 이루어져 있다. b. ‘막내딸’(막내 + 딸)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막내’와 ‘딸’로 이루어져 있다. c. ‘햇감자’의 ‘햇-’과 ‘조금씩’의 ‘-씩’은 접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d. ‘삶은’에서 실질 형태소는 ‘삶-’이고, ‘깨물어’(깨- + 물- + -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깨-’와 ‘물-’이다. 따라서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b, c, d이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는 이번 방송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이 많은 시청자의 요구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시청자의 실시간 대화에 반응하며 대화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질문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③ 진행자가 시청자들의 별명을 언급하며 인사하고 있지 않다. ④ 진행자가 다음 방송에서 무엇을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⑤ 진행자가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며 전달하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진행자가 인터넷 방송 중에 사용한 화면은 방송 전에 진행자가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 올렸던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다. 따라서 진행자가 방송 중에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 요청을 올리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방송이 이루어지는 채널의 이름인 ‘함께 해봄’이 화면 우측 상단에 제시되었다. ②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활용 요령과 사용상 유의점’이라는 자막으로 제시되었다. ③ 시청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실시간 대화창이 화면에 제시되었다. ⑤ 방송 중에 다룬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누리집 주소를 진행자가 게시판에 올려 두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특수 어휘이다. ㉔에서 ‘말씀’은 진행자의 말을 낮추는 겸양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말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다.

댓글에서 ‘초롱’은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할 것을 염려했으나, 진행자의

설명을 듣고 저작권이 있는 글은 중요 내용이 요약된 형식으로만 답변이 제공되도록 요청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초롱’은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있는 글의 전문을 요청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가온’은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허위 정보를 답변으로 제시하는 환각 현상에 대한 진행자의 설명을 듣고,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제공한 답변을 활용할 때는 답변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하람’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진행자의 설명을 토대로 알게 된 후, 진행자가 알려 준 대로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서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봄비’는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답변이 주류로 간주되는 집단의 경향을 따를 수 있다는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속성에 대한 자료를 접한 경험을 토대로, 진행자가 보여 준 화면에 있는 답변 중 구체적인 조건이 없을 때 프로그램이 A 시에 대해서 한 답변에서 해당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4. [출제의도] 매체 활용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누리 소통망 대화에서 ‘정희’는 지난 동아리 회의의 회의록 자료를 과일로 제공할 때 문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의 기능을 사용하여 상대의 말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역사 동아리 대화방’이라는 상단의 대화방 이름을 통해 역사 동아리 부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임을 알 수 있으며, 친구들이 현장 체형 학습에서 박물관을 의미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④ 대화 참여자들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⑤ ‘정희’의 첫 발언과 대화창 상단에 고정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누리 소통망의 공지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물 구성에 대한 기획 회의를 할 날짜와 시간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가)에서 ‘현우’는 ‘게시물에도 이 영상을 넣으면 ~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통해 영상 제공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나)에 넣기로 한 영상은 역사 동아리 부원이 직접 앱을 사용하는 영상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수정’은 ‘친구들이 게시물을 통해 앱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말을 통해 앱을 내려받는 경로에 대해 언급하고, 이는 (나)에 ‘앱 다운로드 바로 가기’를 통해 제공되었다. ② (가)에서 ‘도현’은 ‘친구들이 앱을 활용한다면 실감나게 유물을 관람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을 통해 앱 사용의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이는 (나)의 말풍선 안에 ‘앱 내려받고 실감나게 관람하자!’라는 청유 형식의 문구로 제시되었다. ④ (가)에서 ‘예린’은 ‘이 앱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수정’은 ‘증강 현실로 복원된 유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구현된다는 점’을 앱 기능의 장점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나)에서 앱의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된 글상자로 제시되었다. ⑤ (가)에서 ‘서연’은 ‘앱을 사용하는 목적을 제목으로 강조하고’라는 말을 통해 게시물 제목에 대해 언급하고, 이는 (나)에서 앱 사용의 목적인 ‘박물관 색다르게 관람하기’라는 내용이 강조되도록 글자 크기를 다른 것들과 달리하여 제시되었다.